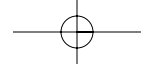




## 현장의 목소리

- ①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이화섭
- ② U대회를 마치고 / 김성일
- ③ 나쁜 아이는 없다 / 엄민섭
- ④ 우리도 교통 선진국이 됩시다 / 이형근
- ⑤ 지역 경찰제 소감 / 정병도



#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이 화 섭 \*

##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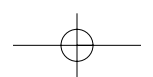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등 그동안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불리우던 기관들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대두 되었고, 무엇보다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태를 벗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등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봉사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 II. 추진체계

### 1. 경찰청에 “경찰혁신위원회” 및 “경찰혁신기획단” 설치

- 금년 4.30일자로 발족한 “경찰혁신위원회”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 18인(표1 참조)으로 구성되어, 경찰혁신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혁신과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무혁신 “자치경찰추진”수사제도개선의 3개 분과위로 운영되고 있다.

\* 경찰청 혁신기획단



현장의 목소리 1

※ 경찰혁신위원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이상 분과위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회의 5회, 각 분과위 13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경찰혁신기획단”은 금년 5월 16일자로 경찰청에 공식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기획단(단장 경무관) 및 경찰혁신위원회 분과위에 상응하는 3개팀(팀장 총경)으로 구성되었다. 기획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연구관’이라고 명명하면서 업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고 있다.

< 표 1 >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명단

분과	각계	성명	현직	주요경력
위원장	학계	韓完相	한성대 총장	前통일 부총리 前교육 부총리
업무혁신	학계	李相安	경찰대 행정학교수	前한국경찰학회 회장
		白亨祚	원광대 초빙교수	前경찰대학장
		金皓起	연대 사회학과 교수	前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단체	朴用薰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에너지절약시민연대 공동대표
	언론계	鄭熙秀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전략경영학회이사	서울경제연구소장
		姜信澈	경향신문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제 48대 관훈클럽 총무
자치경찰	학계	朴恩正	이대 법학교수	前경찰위원회 위원
		李種秀	연세대 행정학교수	前경찰개혁위원
	시민단체	金益植	경기대 사회과학대 학장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언론계	劉昌宣	시사평론가	BBS 라디오 유창선의 아침저널 진행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행시, 경제기획원근무 前규제개혁위원
수사제도	학계	河泰勳	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개혁추진위전문위원
		曹國	서울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시민단체	吳昌翼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前천주교인권위사무국장
	법조계	朴東植	변호사	사시 27회 합격
	언론계	成裕普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前한겨레논설위원
洪性奎			前 KBS특임본부장·보도국장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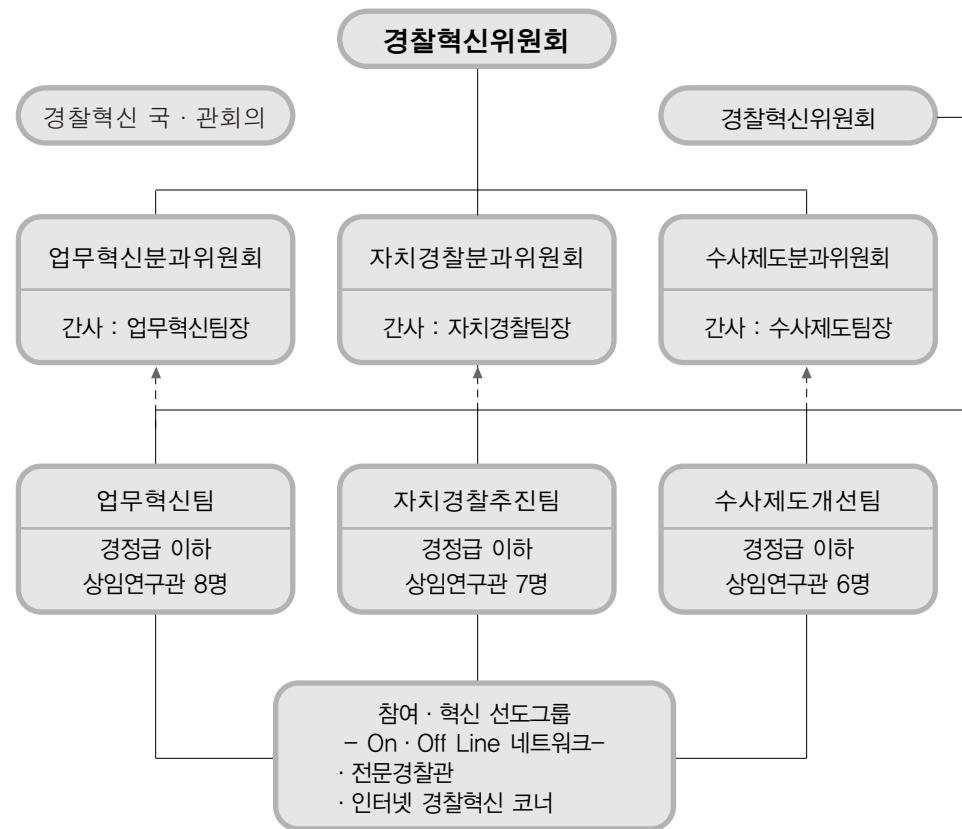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추진

-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주요 혁신 업무를 심의·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금년 4월 7일 발족되었으며, 위원장 1인(국민대 김병준 교수)과 위원 2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행정개혁팀·전자정부팀·지방분권팀·재정세제팀의 4개 실무팀을 두고 있다.
-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동위원회와 협조 하에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혁신 및 자치경찰제 도입’ 분야는 동 위원회 기능과 직접 연계되고 있으므로,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수시로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로드맵(’03. 7), 행정개혁로드맵(’03. 8)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체 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3. ‘토론과 참여’에 의한 개방적 추진 시스템 구축

- 경찰청 차장 주재로 각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혁신국·관회의」를 운영, 주요 혁신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능별 실무토론회와 대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아울러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사이버경찰청에 ‘경찰혁신위원회 코너’를 신설, 제안참여방, 토론참여방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경찰관’을 운영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 ※ ‘전문경찰관’은 경정이하 경찰관중 맡은 분야에 정통하고, 개혁마인드를 가진 경찰관을 선발, 혁신 모니터링 및 전문지식 공유 등을 통해 업무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2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총 256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다.

< 표 2 > 혁신추진 체계도



### III. 추진전략

#### 1. 자율과 참여

- 금번 경찰혁신은 과거 본청 주도하에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일선 기관이 혁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 등 중간관리자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고, 전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혁신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나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 등을 없애는 대신, 일선기관이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2. 선택과 집중

- 경찰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청장님 취임 직후 파출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아울러 혁신은 일회성으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체질화하여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경찰혁신이 하나의 이벤트화 되지 않도록 차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IV.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

#### 1. 업무혁신 분야

##### 가. 그간의 추진사항

- 청장님 취임 직후, 1단계로 우선 추진이 필요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혁신 선도과제 81개를 선정하였으며, 소관 국·관별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 1

- 아울러 경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혁신비전(Vision)과 아젠다(Agenda)」를 확정하여 경찰혁신의 지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2단계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자료 「경찰혁신비전과 아젠다」 참조

- 그리고 일선 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과제 실천을 독려하고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선 경무관이상 지휘관 워크숍(Workshop)을 개최(4.15)하였고, 일선 기관에 「참여메세지」를 시달하여 본청의 의지를 일선까지 가감없이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획단 주관으로 일선 기관에 대한 현장모니터(6.16~22)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혁신과제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드백(Feedback)하고 있으며, 지난 7월 4일에는 청장님 주재로 본청 과장급 이상과 지방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찰 혁신분석「평가회의」」를 개최, 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전국의 전문경찰관과 지방청 기획계장 및 기획요원들과 함께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고 혁신기획단장이 전국 14개 지방청의 경정·경감급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8.7~14)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인터넷 경찰혁신코너 등을 통하여 일선 경찰관과 국민들의 제안을 수렴·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약 1,0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실천 가능성이 있는 160여건에 대하여는 소관 국·관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대외적으로 경찰이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일례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각 부처 업무혁신 관련 포털사이트(Potal Site)인 「업무혁신방」을 개설하고 각 부처의 주요 혁신사례를 게재토록 하여 부처간 선의를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경찰청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청와대 업무혁신방 각 부처 평가 결과 (2003년 9월)

평 가	해 당 부 처
우수(20건이상)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관세청, 국세청 등
양호(10건이상)	행자부, 철도청, 농림부, 중기청, 환경부, 재경부 등
미흡(5건 이상)	공정위, 특허청, 해수부, 산림청, 조달청, 외교부 등
매우 미흡(5건 미만)	정통부, 과기부, 여성부, 법제처, 법무부, 노동부 등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나. 주요 업무혁신사례

① 파출소 운영체제의 전면 개편

- 기존 파출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단 폭력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등 외근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이 취약하고, 파출소가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괴리감이 항상 상존하고 있었다
- 따라서 각 경찰서 권역별로 3~6개 파출소의 인력·장비 등을 통합하여 집중 운용이 가능하도록 「순찰지구대」를 창설하는 한편, 기존의 파출소는 「치안센터」화 하고 민원 담당관 1~3명을 배치하여 순수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경찰서 관내에서 집단 폭력 발생시 순찰차 여러대가 동시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제압하는 등 범죄예방 및 대처 역량의 강화와 함께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예비운영 중이며 시행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②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 경찰계급별 인력구조는 경사이하가 전체의 86.2%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직급구조로 되어있어, 중간실무층이 약화되고 승진적체가 심화되는 등 경찰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일반직 7급이하 퇴직자는 36.5%인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경사 퇴직자가 74%로 “말단으로 들어와 말단으로” 퇴직하는 등 하위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조직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인력증원 없이 계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경사~경감급의 일선 중간 실무층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조사·교통사고조사·형사반장 등 대민 접점 실무요원을 현행 경사이하에서 경위로, 순찰지구대장, 조사·형사계장 등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계급별 인력구조를 현행 첨탑형에서 종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1

- 경찰청에서는 이를 혁신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고, 역량을 총 집주한 결과, 관계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약 3년간 총 10,364명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조직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확정안

〈 계급별 〉

총계	경무관이상 (치안정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10,364	1	17	175	1,200	2,171	6,800
주요내역	경기지방청장 직급조정	지방청과장 직급조정	경찰서과장 직급조정	순찰지구 대장 및 경찰서 계장급 조정	파출 소장 및 조사요원 간부화 등	경사 정/현원 불일치해소

〈 연도별 〉

총계	2003년	2004년	2005년
10,364	3,500	3,500	3,364
주요내역	- 경사정원 현실화(2,260) - 경사파출소장(306) - 순찰지구대장(887) - 경정이상(47)	- 경사정원 현실화(2,270) - 경찰서 계장 및 실무자 경위로 조정(997) - 경찰서 경위급 주요계장 직급조정(159) - 경정이상(74)	- 경사정원 현실화(2,270) - 경찰서 계장 및 실무자 경위로 조정(868) - 경찰서 경위급 주요계장 직급조정(154) - 경정이상(72)

③ 인권 존중 및 국민권익 보호

-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경찰활동의 체질화·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일선 경찰서에 NGO,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유치장, 집회시위현장 등을 직접 방문·상담하는 등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은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아울러「범죄피해아동 진술 비디오 녹화제」를 도입, 운영, 13세미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수사시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피해자가 재차 출석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는 한편, 이를 검찰 조사 및 법원 심리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침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다소 소홀하였던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년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범 수사에 심리학 교수 등 전문가 참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④ 불합리한 법집행 관행 개선

- 혁신과제로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일제 음주단속」 폐지인 데, 이는 그동안 대로를 가로 막고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음주측정을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선별 단속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당초 음주사고의 증가 등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국민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와 함께 「자율집회·시위보호지침」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각종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고 주최측이 질서유지인을 통한 자율적인 책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

⑤ 통합 민원서비스체계 구축

- 각 경찰관서의 민원실을 청문감사관실로 이관, 「고객지원센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사후 구제 중심의 민원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이익과 불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존의 청문감사관실이 본래의 운영취지와는 달리 대민서비스 기능보다는 감찰기능에 치중하여 기능이 왜곡되어 가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교통민원·일반 민원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민원기능을 ‘통합민원실’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 1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가고 있다.

- 아울러 미아찾아주기 기능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한 「미아찾기센터」를 개설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㉔ 경찰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경찰인사질서의 확립은 금번 경찰혁신의 역점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경찰청·지방청의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전보 인사의 틀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위간부 승진 인사시 「다면평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직위공모제는 전국 단위로는 정부 부처 중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시에 모범사례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 아울러 경찰청 인사과에 인사기획계를 신설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선 지휘관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휘관 임기제 및 승진 및 보직인사권의 위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순경출신 경무관이 전무(全無)하는 등 경사이하 하위직의 상위직 진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위이하 최저승진소요 근무연수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경사이하 승진 T/O 최소목표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 청장님 취임 이후 6개월여 동안 부단한 경찰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파출소 운영체제 전면 개편 등 조직 내적으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내부만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지금부터는 이를 동력으로 국민 만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혁신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따라서 2단계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국민만족을 위한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즉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수사·교통사고조사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능률조사 등으로 국민불만의 표적이 되어온 ‘고소·고발사건 줄이기’, ‘교통사고 24시간 즉시 출동·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본청 등 지휘부서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이를 민생치안 분야에 보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자율적인 혁신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지휘관·부서장 등 중간관리자가 ‘변화의 리더’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조직내의 불합리한 관행·행태 개선 및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쇄신’ 방안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로드맵(Roadmap)」에 맞추어 「경찰혁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2. 자치경찰제 추진 분야

가.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 당시 정책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주요 행사시 대통령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속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3.20 경찰대학졸업식 치사), “지금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란 점은 인정하나, 워낙 민감하고 기술적인 사항인 만큼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9.8. 전국 시도지사회의 정리말씀)

현장의 목소리 1

나. 그간의 추진상황

-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치경찰제 로드맵(Roadmap)」을 확정하였으며, 여기에 따르면 2004년까지는 도입방안을 마련하며, 2005년까지 법제화 및 실시를 준비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는 실시 및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경찰혁신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위’를 중심으로 민·경 합동으로 ‘자치경찰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자치경찰제 관련 쟁점사항을 추출하여 국내 및 英·美·日·佛 등 선진 외국경찰제도의 비교연구를 하는 한편, 핵심쟁점에 대해 외부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 연구용역(3가지 쟁점) : 사무배분, 지방재정확보, 지방직 전환범위, 지자체와의 상호관계

다. 주요 쟁점

구 분	주요 쟁점	비 고
도입단위	-시·도 광역단위 도입('99년 시안) -시·군·구 기초단위 도입	- 시·도 광역단위로 도입하지는 것이 중론이나, - 시·군·구단위로 도입하지는 일부주장 있음
경찰조직	【국가경찰위원회】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99년 시안)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 소속 【시도경찰위원회】 -시·도에 설치('99년 시안)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및 경찰위원회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 경찰위원회 소속·구성·권한과 임무 등 세부사항에 논란 있음
경찰인사	【국가·지방경찰공무원의 구분】 -경감이하를 지방직으로 전환('99년시안) - 시도청장을 제외한 전원 지방직으로 전환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임명】 -시·도지사의 직접 관여 배제('99년시안) -시·도지사의 인사 관여 인정	-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쟁점으로, - 자치단체나 분권론자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경찰사무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예외적으로 국가 사무를 명시('99년 시안) -방법·교통 등 일부 기능 자치단체 이양	- 방법·교통 등 일부 민생경찰기능만 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 행정·사법경찰을 분리하여 행정경찰만 자치경찰사무로 하자는 주장있음
경찰재정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 단 한시적으로 현경찰예산율 교부금형태로 배분('99년 시안) ※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 제정 -범칙금을 시도경찰 수입으로 귀속	-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재정을 부담하되 중앙에서 보조금 위주로 재정조정을 하는 방안 및 - 자치경찰재정 배분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음

“경찰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라. 향후 추진계획

- 경찰에서는 기 발표된 ‘자치경찰제 Roadmap’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금년 말까지 현재 진행중인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우리현실에 적합한 자체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월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논의가 마무리 되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04년부터 2005년에는 시민공청회, 당정협의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중론을 모아 국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며, 대전·광주지방청 신설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제도전환 과정에서 기본적인 치안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며, 경찰의 분권화를 뒷받침할 ‘자치치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2005년 하반기 부터는 도입여건이 갖추어지는 데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3. 수사제도 개선 분야

1. 그간의 추진상황

- 그동안 논의되었던 방안을 중심으로 수사권 합리적 배분과 관련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영미법계(경기대 이백철 교수), 대륙법계(동아대 허일태 교수)

현장의 목소리 1

- 아울러 수사권 현실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수사요원의 자질 향상, 수사권한의 남용 방지, 인권침해 요소의 불식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지명수배시 긴급체포 남용방지, 철야조사 엄격 제한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수사요원 인사관리의 틀을 재정립 하기 위한 수사경과제 및 인증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수사제도 개선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준법절차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이같은 수사경찰 쇄신 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경찰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警察革新 Vision & Agenda

# 警察革新 Vision & Agenda

## 1. 경찰혁신의 필요성

### 치안환경의 변화

- ‘삶의 질’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
- 글로벌화·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사회 여건
- 사회적 갈등과 집단적 의사 표출의 급증
-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대두



### 새로운 치안수요

- 국민들의 ‘고품질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
- 날로 광역화·전문화되는 범죄 양상에의 대응
-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풍토 확립
- ‘자율과 분권’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 필요

### 경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 치 안 경찰만의 몫 ⇒ 국민과 공동 생산
- ◆ 국 민 단속·규제 대상 ⇒ 봉사·지원 대상
- ◆ 조직관리 집권·통제·실적 ⇒ 분권·자율·만족



### ① 만족하는 치안

#### 추진방향

- ▶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범죄예방 및 검거 역량 제고
- ▶ 사람·환경·시스템 등 종합적 관점에서 개선 대책 마련

#### 1 - 1. 범죄 수사 인프라 확충

- 범죄양상 변화에 따른 범죄 대응 시스템의 재정비
  - 주요 범죄 유형별 전담수사체제 구축 등
- 수사경찰의 체계적 인사관리로 전문수사관 육성
- 일선 현장 수사 지원역량 강화
  - 범죄정보, 첨단수사기법, 수사장비 등 지원체계 개선

#### 1 - 2. 생활주변 불안 요인 해소

- 지역경찰 운영체계 쇄신으로 예방치안활동 강화
- 범죄 유발 인적·환경적 요소에 대한 적극적 예방 대책 마련
  - 범죄취약 장소, 우범자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 1 -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

- 범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여성·청소년 등 특별 보호
  - 보호 대상별로 실효성 있는 치안대책 마련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배려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② 봉사하는 치안

#### 추진방향

- ▶ 경찰 활동을 '단속과 규제' 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 고객·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 서비스 체계 개선

#### 2 - 1. 인권 존중 및 국민권익 보호

-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찰행정의 체질화·제도화
  - 대내·외 인권보호시스템을 확충하고 인권마인드 정착
- 경찰권 행사의 합리성·적정성 제고
  - 경찰권 행사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제도 개선
  -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규제 등 개선

#### 2 - 2. 치안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 일선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 원스톱 (One-Stop)서비스 제공
  - 현장 운영 실태를 진단, 「서비스 스탠다드」추진
-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 포털서비스 제공

### ③ 참여하는 치안

#### 추진 방향

- ▶ 국경경찰청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확대
- ▶ 시민사회와 함께 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건 확충

#### 3 - 1. 시민 사회와의 협치(協治, Governance)강화

-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등 경찰협력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체간 연계 강화
- 치안행정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 공동체 활성화
- 시민평가단(People's Survey) 및 전문옴부즈맨 도입검토
  - 경찰행정에 직접 참여, 주요 치안시책 모니터링

#### 3 - 2. 치안 공동 생산체제 구축

-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
  - 지역경찰운영체제 개편을 계기로 일제 정비 및 지원 강화
- 범죄신고 활성화 및 치안자원봉사활동 제도화 추진
  - 자발적으로 범죄신고 및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시민자위 방법기준 설정 및 생활안전산업 육성책 마련

### ⑤ 신뢰받는 치안

#### 추진 방향

- ▶ 법집행 기관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투명성·공정성 확보
- ▶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4 - 1. 경찰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한 부정부패 근절대책 적극 추진
  - 경찰관 개개인의 반부패의식 제고 및 취약분야별 대책 마련
- 치안행정 정보공개 확대 및 국민의 접근성 제고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적·자발적으로 공개
- 이의나 다툼이 있는 경찰사안에 대한 공정한 처리체계 확립
  -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

#### 4 - 2. '법과 원칙' 이 바로 선 사회여건 조성

-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시민불편 및 경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집회시위 관리
- 일상 생활 주변의 법질서 문란 행위 근절

## ⑥ 성과높은 치안

### 추진방향

- ▶ ‘자율과 분권’을 토대로 국민 밀착형 행정시스템 구축
- ▶ 내부 만족 확보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창출

### 5-1. 국민 지향적 조직관리

- 국민접촉 기능을 강화하는 분권형 조직설계
  - 권한위임 확대 등 일선 현장부서의 권한과 기능 강화
- 국민만족도 중심의 치안행정 평가체계 확립
  - 단순 통계위주의 실적평가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

### 5-2. 인력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 확보

- 개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육시스템 개선
- 필수 인력 보강 및 계급별 인력구조 개편
  - 의경인력 감축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중간실무층 보강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확립

### 5-3. 미래지향적 경찰문화 창출

-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 다각적인 경찰 이미지 개선프로그램 마련·시행
- 경찰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대책 추진



## U대회를 마치고

김성일\*



금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11일간 열띤 경쟁을 벌인 선수들이 운동장한가운데 모여 이념과 국가를 떠나 세계의 젊은이가 한데 어우러져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던 그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자축하듯 운동장 저편 하늘에서 형형색색으로 펼쳐지는 폭죽을 보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 대회를 큰 무리없이 치뤘다는 자부심과 한편으로는 오랜기간의 결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고생한 동료직원의 눈망울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3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금년 8.21부터 8.31까지 11일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세계 170개국 11,000여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하는, 단일도시로서는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였으며, 특히 이라크 전쟁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았고, 북한이 일찍부터 참가의사를 밝힘에 따라 안전관련 대비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었으며,

\* 대구지방청 북부경찰서 경비계장 경위

또한 현재의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참사로 실의에 빠져 있는 대구를 다시 한번 세계의 도시로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침체된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구 북부경찰서는 UMC(Univerciade Media Center)로 사용될 전시컨벤션센터와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선수촌외에 경기장 8곳, 연습장 8곳, 관내 성화봉송로 및 대구월드컵 경기장 북쪽, 동쪽 구역을 담당하게 되어 어느 관할보다도 경비부담이 큰 실정이었습니다. 후에 UMC와 선수촌이 타서 부책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관할경찰서로서의 부담이 있었고, 특히 이와 같은 규모의 국제대회에 대한 경험이 없던 저와 동료들로서는 모든 작업 하나 하나가 새롭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국제대회가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며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회때까지의 준비과정은 2002년 대선 이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막일까지 수많은 FTX를 하면서도 예행 연습을 통해 근무자 개개인에게 얼마나 자신의 임무와 근무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전달하는가가 근심거리로 다가왔고, 이에 우리 관내의 경기장, 연습장, 성화봉송로 등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경기장별 근무자와 지원부대 기간요원 등을 경찰서로 소집하여 파워포인트의 상세한 요도를 직접 보면서 대회의 전체적인 취지와 근무요령 및 경기장별 취약요소, 근무지 개개인의 위치와 임무등을 토론한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큰 행사가 있으면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잘 활용한다면 좀더 체계적인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들여 개막이 가까워 질수록 예상치 못한 추가 소요경력이 필요하였으나 한정된 인원에서 계획하였기 때문에 예비인원이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장별 인원분배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비경력을 확보하여 변수가 생길 시나 추가계획 변경 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인원은 좀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 경력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여봅니다.

또한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각 경기장은 기히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기획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사용량이 폭주하는 무전에서부터 비웃기나 하듯이 빗나갔고, 상황실 운영에 있어 경기시작 후 며칠동안은 체계가 잡히지 않아 각

채널별 보고되는 무전에만 2명 이상이 매달려 상황처리를 하여할 실정이었으며,

당초에 예상했던 경기장별 전담부대는 북한의 참가와 각종 집회 상황으로 인한 경력지원 등으로 턱없이 경력이 모자라 기본계획에 의한 경력배치의 수정이 불가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원경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예비경력을 확보하여 원 계획에 의한 경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 계획수립시부터 좀더 여유있는 맘으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한번더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기진행 중 각종 변경 사항들은 무전으로 일차조치가 행해지고 각종 경기진행 과정 등의 기록 관리도 무전에서 해야할 일이 많으므로 각 경찰서 상황실처럼 무전요령과 각종 기록관리, 보고 등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연습이 사전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부딪힌 또 다른 문제점은 익일 경력 배치 준비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기존의 지원경력이 각종 변수로 타 관내와 수시 교환이 되고, 각국의 선수단에서 수시로 연습일정을 변경하여 기존계획에 수정이 가해졌고, 대회조직위원회 측에서도 익일 연습일정의 통보와 수합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측에서 직접 각 종목별 협회 사무실에 일일이 경기일정을 확인하고 새벽까지 변동을 체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런면에서 대회조직위원회의 좀더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과 시설이 마련되어, 익일 일정 등의 수시 변경 자료는 전산망을 통한 단말기로 각 기관별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대회의 최대관심은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바라는 대회홍보면에서 북한의 대회참가는 필수적인 요소였으나 이로인해 안전에 대한 부담은 커진 것이 사실이며, 대회홍보와 더불어 안전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선수단, 특히 응원단이 가는 곳은 어디서나 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경기는 뒷전이다 싶은 정도로 응원단 취재경쟁으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많은 뒷 이야기를 남겼으나,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참가국의 대회 이미지에 반하여 너무 북한에만 관심이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네 딸·동생 같은 어여쁜 북한 응원단의 발랄한 모습뒤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념의 이질감이 문득 느껴지곤 했는데 장군님 사진을 비맞게 한다며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현장의 목소리 2

그러했고, 카메라 앞에 서면 맑은 미소로 손을 흔들다가 경찰관들을 대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 등이 그러했으며, 그야말로 잘 훈련된 연기를 보는 착각 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날 무렵 관내 마지막 경기장에서 떠나 보낼 때 버스 창문 커튼안에 보인 그들의 눈망울은 웬지 제게는 말 못할 설움을 속에 품고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측은하기도 하고 맘이 아파왔습니다. 하루빨리 분단된 국가를 넘어 이웃에서 사사로운 얘기도 하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 해 봅니다.

이번 대회에 가슴 뿌듯했던 점은 참가한 각국의 모든 선수들이 밝은 모습으로 경기에 참가하고 폐막식때도 정식 일정이 끝났음에도 대구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내에서 떠나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맘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이념에서 자른 젊은이들이 그렇게 허물없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만이 줄 수 있는 묘미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 일부나마 관여하게 된 저로서는 보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먼 동방의 작은나라에 온 선수들이 느꼈던 편안함 속에는 그들을 따듯이 맞이해 준 대구시민과 써포터즈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침체된 대구의 분위기, 평소 배타적이고 보수적으로만 인식되던 대구에서 이번에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열렬한 응원과 질서있는 관람모습은 전세계 어디의 선진관람 문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고, 특히 각 나라별로 구성된 시민써포터즈는 자칫 우리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대회를 모든이가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서 이름 모를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자기네의 언어로, 자국의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응원석까지 올라가 함께 목청높여 응원하던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고, 저런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각종 기관들이 노력을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해낼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또다른 주역은 타시도에서 지원은 전·의경들이었습니다. 화물연대 등 각종 집회에 몸과 맘이 지쳐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속에서 열과 성의로 근무를 해 준 대원들에게 감사하고 좀더 잘 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고된 일과를 끝내고 새벽녘에 돌아와 습기차는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전·의경들을 볼 때 내가 좀더 숙영지에 신경을 썼더라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잠이나마 맘편히 청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도 가슴한 구석에는 미안한 맘으로 남아 있고, 다음 번 또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장 못지 않게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또한 숙영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는 타 기관과의 협조문제 등이 대회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의 또다른 숨은 일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꺼이 대회를 몸소 지원해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 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60대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여름 피약별 아래서 하루종일 근무위치에 서서 안내를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내일처럼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노부부가 “우리 생애 다시 이런 큰 대회가 없을 것 같아서 죽기전에 조금이나마 보람된 일을 하고싶어 부부가 함께 자원을 했고, 만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겸손해 하시던 모습이 새삼 연일되는 근무에 지쳐 있던 저와 동료들에게 가르침과 다짐음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를만큼 동료 직원들 모두 연일 밤을 세면서 대회를 맞이 했것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좀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부족한 점들을 거울삼아 더욱 계획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 관련 자료 정리 및 백서 발간작업이 잘 마무리되어 차후 어느 도시에서 이 같은 국제 대회가 치뤄 지더라도 더욱 성공적인 대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기화로 대구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태풍매미에 의한 피해도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 나쁜 아이는 없다

### ■ 엄 민 섭\*

**일** 선 외근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들을 다 접하게 된다. 그중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건·사고의 경우 말 못할 사정들이 오랫동안 잠재되어 온 것들이 대부분으로 외부에 돌출되었을 때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 많고 선뜻 개입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연히 근무관련 수기 모집 공고를 보고, 마음속 깊은 곳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랜 갈등으로 불행했던 한 가정에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고 평화로워진 가족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나만의 만족을 얻었던 지난 기억이 떠올라 소개하고자 한다.

평소 안면이 있던 자치단체 모 공무원이 상의할 이야기가 있다며 경찰서 앞 다방으로 찾아왔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내 업무와 관련된 줄 알고 자리를 마주했다. 연신 담배만 피워대던 그 공무원은 차마 말하기가 어렵다는 듯 머뭇거리다가 말을 꼬집어내기 시작했는데, 재수생인 아들로부터 아내와 함께 폭행을 당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 고소를 해야겠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였다.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 이런 패륜아가 도대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런 나쁜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면이 있는 내게 찾아온 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픈 감추어진 부정이 엿보여 일단은 그 녀석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정보과

밖에 나가 있던 녀석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려 정복을 입은 경찰관과 동행하여 커다란 덩치에 덩수룩한 머리 모양을 한 녀석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반항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찰관이 자기 집에 왜 온 줄을 짐작하는 듯 친구들과 한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전화 몇 통화만 하더니 순순히 파출소로 따라 나섰다.

파출소 안 한쪽 편에 있는 근무모자며 사무집기를 모아두는 작은 별실에서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녀석과 마주앉은 나는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백지에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왜 파출소에 왔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녀석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직감하고 있는 듯 알고 있으니 법대로 처리하라는 식이었다. 설령 밖에 나가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때릴 수 있느냐며 다그치기도 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추후도 아버지께 대들지 못했던 내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한동안 아픈 말을 늘어놓은 후에야 녀석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남 1녀 중 장남인 녀석은 보수적이고 평소엔 말이 없다가 술만 마시면 한참동안 불러놓고 혼계하는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에게도 애뜻한 모정을 느끼지 못 했던 듯 했다. 연신 울먹거리며 말을 이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술 한잔하면 공부 못하는 외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던 아버지와 엄한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때리려는 아버지를 막으려다 벌어진 몸싸움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폭행을 부인하는 녀석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듯 했다.

처음의 완강했던 마음에서 다소 누그러진 나는 공직에 몸담고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오직 자식에게 기대가 많았던 아버지와 성격이 직설적이지만 계모도 아닌 친 엄마가 미워해서 그랬겠는가라는 논리로 녀석을 야단도 치면서 달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녀석의 괴리감을 이해시키고 좁혀가며 결국 녀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가족애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될 듯 해 녀석을 인근 소주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셔가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를 불러 내 곁에 앉아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녀석에 대하여 부모에게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녀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몇 시간 녀석과 이야기하더니 그 사이 아이에게 넘어갔다고 그럴 수 있느냐며 펄쩍 뛰는 게 아닌가?

현장의 목소리 3

얼마나 부모 자식간에 끈이 깊었으면 그럴까하는 생각이 스치면서도 녀석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 접근 방식을 바꾸어 고개를 쳐들며 부모에게 대드는 녀석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나무 대뜸 때리고 있을 때, 그제서야 녀석의 어머니는 그만 때리라며 감추어진 모성을 드러냈고 아버지 또한 안쓰러운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다.

녀석이 내게 들려주었듯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엄청 좋아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금 꼬집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고, 부모에게도 자신들의 많은 기대감과 욕심이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고 짐이 되어, 자식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쌓아 두었던 서운함과 분함을 풀어내기에는 꽤나 시간이 필요해 추가로 술병이 여러 병 배달되어 오는 동안 시간은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해를 풀어가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부자간에는 어느덧 희미하기만 했던 사랑의 불씨가 되살아났고, 몸이 약한 아들에게 이제 술을 그만 주라는 아주머니의 아들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일행은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고 감정이 복 바쳐 오르는 듯 부둥켜안고 우는 부자간이 그렇게 정겨워 보일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 지끈지끈한 머리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녀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얘기인 즉, 어젯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잘못했다고 녀석이 빌고 오늘 아침에는 참으로 몇 년 만에 안녕히 주무셨느냐는 인사말을 들었다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제는 살맛이 난다는 것이었다.

다시 녀석과 통화를 하여 엄마, 아빠께 잘해드리라는 재삼 당부하고 그러겠다는 녀석의 약속을 듣고는 마치 큰일이나 해낸 양 의기양양해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처음에는 녀석 아버지의 말만 듣고 천하에 나쁜 놈으로 생각했던 녀석에게도 나름대로 반항의 이유가 있었듯, 모든 일에는 동전과 같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고 특히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어느 한쪽 편에 편견을 갖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도 교통 선진국이 됩시다

이 형 근\*

나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지이고 산악지역인 가평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성장해왔다. 내가 태어난 청평댐이 있는 청평호 주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지로서 제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장이 제일먼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를 다닐때만해도 자가용 승용차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아니면 타고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나도 내 살아생전에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견(?)스러운 것임은 틀림없다. 대한민국 어느곳을 가나 차량이 많고, 그러니 사고도 많이 난다.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경찰관이 근무도 열심히 하고 도로도 새로 개설하는데 이놈의 차는 정체되면 서 있기만하지 도무지 빠져 나갈줄 모른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인지 차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또한 너 나 할것없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 승용차로 1시간 출·퇴근 거리도 이제는 새벽밥 먹고 일찍 서둘러 전조등 켜고 출행량 치듯이 가지 않으면 출근 시간전에 도착 하기란 애시당초 글픈 것이다. 그것도 중간중간 신호위반 몇번하고 끼어들기 등 암체 위반을 몇 번 더 해야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다

지금이야 세계 구석구석 곳곳 해외 여행이랍시고 안가보는곳이 없고 한국사람 안만나는곳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경찰 초임 시절인 78년도경에는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의 꿈도

\* 경기지방경찰청 안성경찰서 교통지도계장

못 끝내다. 기껏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제주도 여행이 고작이고 이것도 결혼 신혼여행이나 조금 여유가 있는 집 아니면 호화 사치였다.

본인은 아직도 제주도에도 못가본 위인이지만, 당시에 생각해보는 것이 내가 죽을때까지 어느나라 이걸 외국이라는데를 가볼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계속 생활하다보니 나에게도 외국이라는데를 가볼 기회가 왔다 몇년전 사회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자매결연 JC인 대만 영화JC 특우회인 자심회 초청으로 5박6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이어서 경찰청에서 전국 교통경찰관중 교통사고감소 유공 경찰관을 각도에서 선발하여 유럽지역 선진교통문화 견학을 시키는 행사에 선발되어 가게 되었다. 참으로 세상 오래살고 불일이다 사실은 유럽지역(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교통문화 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문화가 짧아서 인지 외국 자동차 문화에 비교하면 질서수준은 영 말이 아니다. 자동차 사고율, 그것도 사망사고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질서지키기, 양보심 갖기 등 기본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전부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자가용 없이는 이제 행세를 못하는 세상이다. 소득 1만불 시대라고는 하지만 경제와 질서문화까지 1만불 시대에 맞는지는 각자 생각해 불일이다.

**외국과의 도로를 우선 비교해 본다.**

외국의 경우 땅 면적이 커서인지 일반 도로건 고속도로건 대부분 몇십분은 달려도 곧은 도로이다. 언덕이나 커브길이 별로 없어 운전자 시야 상태가 좋고 또한 제한속도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별로 없다. 도로변에는 휴게소(음식점 포함)가 없다. 있다는 것이 화장실 이용이나 휴식을 위해 공원식 벤치가 있는 간이 휴게소가 고작이다. 여기서 잠깐 휴식하며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도 다녀온 후 다시 출발한다. 휴게소 간판이 없는 대신 몇km 전방에 화장실이 있다고 알리는 안내 표지가 친절하게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상상해 보시라 낮, 밤없이 매일 시골 5일장이 서는 풍경이다. 일반도로 역시 도로변에 맨 먹는 음식점 간판이 교통 표지판과 섞여 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외국에 도로는 참으로 깨끗하고 신선하고, 보기가 좋다. 우리나라는 야간이면 시내건 외곽도로이건 이러한 간판들이 휘황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손님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생활문화에 차이는 있겠지만 유럽 지역은 저녁 6시면 모든 상가가 대부분 문을 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래야 살수가 없으며 이들은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도 않는다. 야간에 보이는 불빛은 거의가 교통 시설물 불빛이다. 자연히 밤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조용하고 교통사고도 적을 수밖에... ..

우리나라를 보자 저녁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냥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기차다. 도심지에서는 지나치는 사람끼리 어깨가 안 부딪치고는 걸을수 없을 정도로 도로에 사람들이 초만원이다. 음식점, 골목 또는 일반 상가등이 밤 12시가 넘도록 북적대며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사람, 길거리의 점포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앰블런스, 119구급차, 경찰순찰차들의 사이렌 소리 정말 정신없을 지경이다. 그들은(유럽인) 한국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 못한다고 한다. 사람 만나는 일도 그렇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같이 있었고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이면 전화로 통화 할 수 있고 낮에 만날수도 있는데 왜 퇴근을 하고서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소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틀리는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다 옳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말이다

**다음은 교통법규 준수 이다**

유럽지역 도심지 도로는 우리나라보다 좁다. 대개 편도 1,2차로이고 기껏 넓어야 편도3차로이지만 고속도로 외는 드물다. 자연히 속도는 4~50KM정도 밖에 못낸다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많아서이다. 여기도 역시 교통체증이 있고, 도로에 횡단보도도 있고 하여튼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인내심이 있어 체증이나도 경적한번 안울리고 계속 서있고 빨리 가려고 끼어들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없고 참으로 잘 지킨다. 가끔 도로변에 주·정차위반이 있지만 이로인해 체증은 없고 곧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나 사람이 서 있을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 모든 차는 멈춘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면 자연히 신호에 의해서 횡단하지만 없는 곳 만큼은 정지를 꼭 한다. 교차로 통과시도 체증 시에는 신호가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절대 진입을 안한다. 통과 하기전 신호가 변경되면 다른방향 진행 차량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심지라 해도 도로가 편도 4차로, 5차로, 넓은 곳은 8차로까지도 있다. 도로가 넓다보니 100km이상 속도로 달린다. 제한 속도가 어떻든 간에 앞에 걸리는 것만 없으면 무제한

현장의 목소리 4

이다. 또 신호가 변경 되기전 예비 신호인 황색 신호를 주는데 이것은 교차로 진입시에는 신속히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전 정지선 전에 변경되면 정지를 해야 하는데 정지할 마음으로 속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가속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차로 사고의 주 원인이다.

또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정체가 되어 있으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니 차는 뒤엉키고 서로 뺄뺄대고 문열고 욱설하고 신호는 변경 되어도 차가 엉켜 도통 움직이지 못하니 죄없는 교통경찰에게 욱지걸이를 한다. 교통정리를 안해도 본인들이 질서와 법규를 지키면 이러한 현상이 있겠는가. 유럽견학 기간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하는 교통경찰관은 한명도 못 봤다 어쩌다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은 봤어도 말이다. 그것도 하루 한번이나 볼까 말까다. 그만큼 그들은 법규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단속은 거의 무인 자동카메라로 촬영 후 벌금납부고지서를 보낸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교통경찰근무는 세계 제일인 것 같다. 아침RH 근무니 저녁RH 근무니 또는 갖가지 사회단체나 학교, 기타 행사로 동원되어 도로 한복판에 서서 매연 마셔가며 하루종일 입이 부르트도록 호각을 불어대고 손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차량역시 소형으로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의가 중·대형이다.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외제차량중 벤츠나 BMW는 거의가 대형이지만 생산국인 독일에서는 이런차는 보기 힘들고 거의가 다 소형차이다.

독일에서 한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경찰활동 등 그들의 근무 방법 설명을 듣고 외곽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경찰차량을 일반 승용차량으로 위장해서 과속단속장비 일명 스피드건을 장착해서 사복을 입고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에 바짝 붙어서 속도를 측정하고 운전석 옆에둔 경광등을 차량 지붕위에 얹고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우측으로 정지 신호를 한 다음 내려서 경찰관임을 알리고 벌금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래도 그들은 이의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유럽 가기전 대만에서의 일이다. 처음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도데체 이걸 차가 도로 어느 차선으로 가고 어떤 신호에 의해 가는지 도무지 상황이 말이 아니다. 웬 오토바이는 그리 많은지 도로에 70%는 오토바이이다. 그것도 큰 것이 아닌 50~90cc쯤 되는 바퀴가 조그마한 작은 것들이다. 이 오토바이 들이 이리끼어들고 저리끼어들고 택시까지도 신호에 관계없이 먼저

우리도 교통 선진국이 됩시다

들이 밀고 가는차가 우선이니 나로서는 이런곳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나 참으로 교통 후진국도 한참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다. 길거리에 교통순경 역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이래도 길거리 역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제 갈길 간다. 이들은 먼저 들이민 차량에게 무조건 양보를 하며 서행 내지 정지를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경적을 울릴 이유도 없고 또한 사고 역시 없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기 위해 또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 하고 교통경찰관이 단속 근무를해도 운전자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뒤지는 것이 없다. 도로도 넓고 쪽쪽 잘뻗어 있으며 교통경찰관 근무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단지 우리는 법규를 안지키고 질서와 양보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교통질서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빨리 가봐야 5분 먼저 간다고 하지 않는가 거리 상으로는 많아 가겠지만 시간 상으로는 5분 차이다. 선진국으로서의 발판은 교통질서 지키기에서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모두 교통법규 준수하고 질서지켜 교통선진국 대열에 끼일수 있도록 해야 겠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역 경찰제 소감

### ■ 정 병 도\*

**초**여름이 시작되는 작년 7월 월드컵 합성이 끝나던 날, 수원중부경찰서 파정파출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첫 파출소장 보직을 받고서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초조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고민이 되었다. 선배 파출소장들에게 많은 조언도 듣고, 그 동안에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출소장 직책에 대하여 계획도 세워보고, 지역치안을 맡아 해보고 싶은 일들을 그러도 보았지만 쉽사리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파정파출소는 인구 3만 여명으로 수원북부 외곽 지역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존하면서도 치안수요는 도심지역과 같을 정도로 사건·사고가 많은 파출소에 속한다. 직원은 15명으로 5명씩 3부제로 근무를 하고 여경도 1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근무 형태는 소내 1명, 순찰차 2명, 나머지는 도보·싸이카 등으로 편성하고, 심야에는 소내 2명으로 보강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처음 부임하면서는 의욕적으로 관내 범죄예방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도 해보았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 버렸다. 인구 3만이 넘는 지역에서 1일 5명 가량의 경찰력으로 관내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었을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의 처리에도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말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주문이었다고나 할까.

\*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계장

당시 파출소장인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전 어느 버스 안에서 보았던 어린 소녀 하나가 기도를 하는 장면 옆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쓰여진 기도문처럼 관내에서 제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파장동 사거리 주변에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가가 밀집하여 폭력 등이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술값 시비, 취객들의 횡포를 처리하느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갖은 애를 먹고, 취객들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도 수시로 일어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회의마저 가져야 할 때가 너무 많았다.

특히 가슴 아플 때는 주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다룰 때다. 올 4월 중순 21:00경 여경인 이모순경이 남자경찰관 1명과 함께 112순찰근무 중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하였는데, 제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 피의자로부터 가슴부위를 발로 차이고, 온갖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하였던 일이 벌어져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에 연행하여 왔던 일이 있었다.

당시 이순경이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라고 위로하면서도 파출소장으로서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매 맞는 경찰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경찰의 현 실상이 우리 경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밤늦도록 우리 경찰력과 공권력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112순찰근무에는 가급적이면 여경을 근무배치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남자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되어 항상 피해가 우려되었었다. 때로는 파출소에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등을 늘어놓아도 오히려 달래서 보내기 일쑤이고, 또한 폭력사건 등은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싸우는 사람 제지하랴, 서류 작성하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너무 시끄럽다고 인근 주민들이 파출소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사례까지도 있어, 파출소장으로서 정말 오늘밤도 무사히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곤 하였던 것이다.

파출소장은 일근, 일근, 당번, 비번 순으로 집보다는 파출소에서 사는 날이 훨씬 많았다. 더러 속 모르는 사람들은 경찰서 내근 부서 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여간 부담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관내에 중요 사건 등이 발생하면 자다가도 현장에 나가봐야 하니, 파출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생긴 버릇이 한밤중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는다.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는 덩달아서 깨어 일어나 오히려 나보다 더 긴장해 하고, 항시 몸이 어디에 있건 마음은 관할 파출소에 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는 평온한 마음과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늘 미안하기만 하였다. 주5일제다 하여 쉬는 날 이웃들은 동해안이니 서해안이니 하면서 멀리 놀러간다고 하여도 우리 가족은 기껏해야 수원인근을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그것도 애들이 쉬는 휴일에 나의 비번이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한번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런 일상 생활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중, 수원중부 경찰서가 2003. 6. 1일부터 경기도경찰청에서 지역경찰제 시범경찰서로 선정되었다.

처음 지역경찰제근무를 실시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을 때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 예전 '99년경에 기동순찰대제 근무를 시행하다 중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 없이 괜한 일을 벌려 일만 번거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우리 경찰의 청사진을 담은 지역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전달되면서 직원들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반응이 많이 순화되었다.

처음 지역경찰제근무를 시행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려니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으며, 파출소 사무실은 15평 정도의 규모로 50여명이 근무하기에는 턱없이 비좁고, 주차장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였다.

6.1일 인근의 송죽, 정자파출소가 파정파출소로 합쳐져 중서지구대로 명칭을 정하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나는 지구대 제1사무소장을 맡았다. 당시 중서지구대 근무자는 순찰반 14명, 관리반 2명, 민원담당관 2명, 순찰지도관 1명 등으로 편성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나는 여기서 바야흐로 우리 경찰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 순찰차 3대, 소내 2명이 우선 확보되어 폭력사건 처리시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여 다수의 경찰력으로 폭력피의자를 제압하고, 사건 조사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예가 거의 없어졌다. 심야에는

2시간씩의 휴게도 있어 눈치보지 않고도 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휴무일이 있어 휴가를 굳이 내지 않아도 2~3일 가량은 즐거운 휴일을 보낼 수가 있었다.

새로운 근무방법으로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지난 7월 중순경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납치를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되어 무전에서 다급한 지령이 내려졌다. 예전 같으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다른 순찰차들은 무관심할 법도 있지만, 지령을 받은 순찰차 3대 중, 1대는 길목을 차단하고, 1대는 현장으로, 1대는 현장에서 도주방향으로 추격하여 불과 10분만에 의왕까지 추격하여 순찰차 2대가 동시에 도주차량을 차단하고 검거하였는데 이는 지구대가 아니면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20여 년 동안 근무하다 민원담당관이 된 안경사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각종 사연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척척 처리하여 노장이 서야 할 자리를 실감하고 있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이순경은 관리반에 편성되어 폭력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순찰 근무자들도 폭력 현장에서 매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여러 대의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고, 다수의 경찰력이 범피자를 제압하여 그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비난받던 일 또한 많이 시정될 것이다.

아내는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당신 남편 실직 됐느냐"고. 예전과는 다르게 매일 집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럴 만도 하다. 야간 근무를 한 날이면 34시간을 쉬고 출근을 하니 동네사람들 눈에는 실업자로 보였으리라. 이제는 쉬는 날 전화벨이 울려도 놀라지 않으리라. 비상이 아니고는 사무실에서 전화 올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동해안도 가보고 서해안도 가보리라.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새로운 제도도 장, 단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보다 발전된 새로운 모습으로 순찰지구대가 더욱 발전해 보기를 동해안의 일출을 보면서 기원해 볼까나.